

광주시립미술관 1년간 어떤 작품 모았나

# 민주·인권·평화 ‘광주정신’ 담긴 178점 수집

## 데미언 허스트 등 다음달 10일까지 전시회 65점 공개

미술관은 어떤 작품을 소장하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 향후 전시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술관이 소장품 수집에 많은 예산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어떤 작품을 새로 소장했을까?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구입 64점, 기증 113점, 관리전환 1점 등 모두 178점을 새롭게 수집했다. 구입작품 중 45점은 아트페어를 통해 구입했다. 기증받은 113점 중 80점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들이다.

지난해 구입한 소장품 목록 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보성출신 황재형씨의 ‘잠’(캔버스에 유채·112.1x193.9cm·1999~2004)이다. 가나아트 소속 작가인 황씨는 태백에서 직접 광부로 일할 정도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 ‘탄광촌 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스타작가 데미언 허스트의 판화작품 ‘For the love of God Laugh’(실크스크린에 혼합재료·100x75cm·2007)도 소장품 구입 목록에 포함됐다.

화순 출신으로 광주·전남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강용운 화백의 ‘축하’(종이에 수채·40x40cm·1950)와 김용복씨의 ‘시공’(캔버스에 유채·93x93cm·1976) 등 의미 있는 작품들도 새로 구입했다.

시립미술관이 구입한 고 이규환 화백의 ‘Mind of jewelbox’(혼합매체·130.3x162cm·2009)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이씨는 미술관이 작품을 구입한 직후 눈을 감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전에 거머쥔 마지막 작품인 셈이다.

극사실주의 작가로 시대의 표정을 담은 작업을 하면서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강형구씨의 ‘자화상’(캔버스에 유채·258x194cm·2001)은 미술관이 기증받았다. 강씨는 기증을 하면서 “허백련, 오지호 선생을 너무 존경하고, 광주라서 기증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신자씨의 ‘4’33’ 악보’(종이에 펜·30x21cm·2012), 홍신자·베르너 샷세 부부의 ‘Portrait of John Cage’(캔버스에 먹·223x232cm·2012)와 ‘동서양인’(퍼포먼스 영상·2012)도 미술관이 기증받았다. 이 3점은 지난해 7월 홍신자씨 부부가 시립미술관에서 존 케이지와 백남준 작가를 기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남긴 작품이다.

광주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오(SEO·본명 서수경)의 ‘찰라’(아크릴, 종이, 캔버스에 콜라주·200x250cm·2005)도 독일 유명화랑 마이클 슐츠 갤러리로부터 기증받았다. 지난해 광주에서 전시회를 연 조영남씨도 ‘시인 이상을 위한 지상 최대의 장례식’(캔버스에 혼합재료·100x80cm·1999)을 시립미술관에 기증했다.

이 밖에도 한묵 ‘동방의 별들’(캔버스에 유채·150x200cm·1987)을 비롯해 미술과 토말의 공동제작 걸개그림 ‘민중의 싸움’(종이에 아크릴 수성안료·174x700cm·1997) 등 현실참여적

경향의 작품 8점을 수집함으로써 민주미술 자료도 풍부해졌다.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에는 이우환씨의 작품 18점이 포함돼 있다. 시립미술관은 모두 38점의 우수한 작품을 소장하게 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 있는 이우환 컬렉션을 가지게 됐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광주라는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민주·인권·평화 정신이 잘 드러난 현실참여적 경향의 작품과 호남미술사 정립과 연구를 위한 작품을 위주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미술관 3, 4 전시실에서 ‘신 소장품2012’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작품 중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65점이 선보인다. 강형구, 조영남, 세오, 홍신자의 작품은 전시되지 않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강길원 작 '재건'



김용복 작 '시공'



한묵 작 '동방의 별들'



강용운 작 '축하'

# 시립예술단 ‘반쪽 평정’ 마무리

## 239명중 노조원 포함 81명 참여...재평정 대상 없어

노조가 불참을 선언, 반쪽으로 진행된 광주시립예술단체 정기 평정이 일단 마무리됐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이번 정기 평정에는 전체 대상자 239명 가운데 81명이 참가했으며 재평정 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립예술단 조례에 따르면 실

기평점(70점)과 근무 평점(예술감독 평가 20점 포함) 30점을 합쳐 70점이 하일 경우는 재평정을 받아야 한다.

평정 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이번 평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조는 재평정 참여를 포함한 안건을 놓고 5일 회관측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평정에 참가한 81명 가운데는 노조원도 1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조원은 공식 탈퇴후, 일부는 노조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평정에는 참여했다.

가장 많은 단원이 평정을 받은 단체는 합창단. 대상자 44명 가운데 27명이 평정에 참여했다. 합창단의 경우 노조원들의 참여가 많았다. 이어 국극단이 4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평정에 임했으며 국악관현악

단은 44명 중 15명이 참여했다. 그밖에 무용단은 29명 중 6명, 교향악단은 80명중 노조원 2명을 포함 모두 11명이 평정을 받았다.

이번 평정은 각 단체별로 모두 7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측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됐다. 노조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예술감독 점수가 불합리한 평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평정을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문화회관과 재평정 참가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음악가로 더 큰 꿈 품었어요”

##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참여 지역 13명 꼬마음악가

꿈이 또 다른 꿈을 낳았다. 지난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3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에 참여한 광주 지역 13명의 ‘꼬마음악가’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었다.

우리나라 최대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베토벤의 ‘운명’ 등을 연주하고,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은 아이들은 ‘미래의 나’를 그렸다. 첼로 선생님을 꿈꾸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합동 공연을 상상한다.

이번 공연은 2년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마련한 행사로 전국의 9개 오케스트라 단원을 가운데 오디션을 통해 전국에서 98명을 선발했다.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꿈꾸는 오케스트라’에서는 모두 13명이 선발돼 이번 무대에 올랐다.

공연 며칠 전 만난 아이들은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다들 신나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공연을 마치고, 행복한 마음에 젖어 있는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김지호(문우초 4년)=1년반 전만 해도 나는 비올라라는 악기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처음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손가락이 아플때까지 연습을 했다. 결국 오디션에 합격해 1, 2차 합동 캠프를 거쳐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랐다. 마지막 곡까지 마치고 인사 할 때는 눈물이 울컥하고 올라왔다. 내 나이에 이렇게 큰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아이가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있을까? 공연 후 난 꿈이 하나 생겼다.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베네수

엘라 카라카스 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 무대에 꼭 서고 싶다. 더 열심히 연습해서 10월에도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

▲천세연(용봉초 5년)=오디션에 합격하고 진행된 캠프에서 난 놀랐었다. 바이올린하는 친구는 손가락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첼로를 하는 언니는 어려운 부분도 막힘없이 해내는데 웬만한 일에는 쫄지 않는 나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수습번호 넘는 동영상으로 보고 악보를 외웠던 곡이기 때문에 나 역시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앙코르곡까지 6곡의 연주가 끝나고 나자 쏟아진 우렁찬 박수 소리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공연 후 감기 몸살에 시달렸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또 다시 설렌다.

▲염성현(광주남초 4년)=“성현아, 플루트 한번만 불어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같은 반 여자 친구 부탁에 오늘도 플루트를 들고 학교에 간다. 바이올린을 배운 친구는 나와 팀을 만들어 연주하자고 난리법석이다. 꿈꾸리 오케스트라 덕에 나는 친구들과 앞에서 의젓한 플루트 연주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꿈이 생겼다. 플루트 연주를 멋지게 하는 선수가 돼 가난하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음악을 연주하는 내 모습을 그려본다. 노래하는 걸 좋아해 어떤 악기든 하나 배우고 싶었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엄마의 말이 기억나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오케스트라에서 무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했던 자랑스러운 내 모습을 기억하며 나도 꼭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베풀며 살아야겠다. /김미은기자 mekim@

# ‘꿈꾸리 오케스트라’ 3기 단원 모집

광주 ‘꿈꾸리 오케스트라’가 3기 단원을 찾는다. 광주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3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사업 ‘꿈꾸리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2기에 이어 오는 13일까지 광주 거주 초등학생 3~5학년생을 대상으로 3기 단원 11명을 추가 모집한다.

3기 단원들은 총 80회 240시간 동안 파트별, 그룹별 교육과 함께 인성 공동체 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지난해보다 호른, 타악 등 신규 파트 및 악기 수를 늘려 총 54명 규모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단계 프로그램, 오케스트라 적응기, 입문기 등을 거쳐 합동캠프, 교류 연주회, 연말 ‘작은음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참여 희망 학생은 13일까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4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보약, 홍삼은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